

안창호 평전

“진리(眞理)는 반드시 따르는 자기있고 정의(正義)는 반드시 이루는 날
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도산의 말씀-

글 | 안병욱 · 안창호 · 김구 · 이광수 외

펴낸곳 | 도서출판 청포도

펴낸이 | 이준기 · 최문섭

편집 | 최병로 · 이국주 · 이수영

디자인 | 박경희

등록 | 출판계 9 - 133 호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미아4동 8-100호

이메일 | booksblue@naver.com

전화 | 02-987-0431 (대표)

팩스 | 02-987-0430

개정 3판 인쇄 | 2007년 7월 30일

개정 3판 발행 | 2007년 8월 15일

인쇄 | 아람인쇄 (02-730-8498)

ISBN 89-955459-0-9

*도서출판 청포도는 독자의 양식을 일깨우는 좋은 책만을 출판 보금 합니다.

*본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

홍사단 전 이사장(前 理事長) 안병욱(安秉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先覺者)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선생은 60평생을 민족독립(民族獨立)의 계단 앞에 바친 뛰어난 혁명가요, 학생과 청년교육에 심혈(心血)을 기울인 훌륭한 교육자요, 뜨거운 말솜으로 온 국민의 심금(心琴)을 울린 탁월한 웅변가요, 원대한 이상(理想)을 제시하여 민족의 진로(進路)를 밝힌 놀라운 사상가(思想家)요, 정성껏 인격을 갈고닦아 온 저레가 높이 우러러 보는 나라의 큰 어른이 되신 수양인(修養人)이다.

일본 경찰이 도산에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었요”라고 물었을 때, 도산은 당당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獨立運動)이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민족혼(民族魂)의 화신(化身)이요, 애국(愛國) 정신의 불꽃이다.

도산이 가장 사랑한 것이 셋 있었다.

첫째는 진실(眞實)이요, 둘째는 젊은이요, 셋째는 민족이었다.

산생의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하기로 한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우리나라를 망친 원수가 누구냐? 거짓이다. 내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하리다.”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靑年)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학생(學生)이란 무엇이냐? 미래의 무기(武器)를 예비하는 자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健全)한 인격(人格)이 되라.”

“우리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人物)이 되려 마음을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自身)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서 101 1380299

왜 인물될 공부(工夫)를 아니하는가.”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남자도 여자도 우리 이천만(二天萬) 한족(韓族)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죽더라도 동포(同胞)끼리는 무저항주의(無抵抗主義)를 쓰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며자. 동포끼리는 악(惡)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자.”

“나는 사람을 가리키어 개조(改造)하는 동물이라고 하오.”

“모진들이나 등근 틀이나 다 쓰이는 장처(長處)가 있는 법이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이 않다하여 나무랄 것이 아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恐怖)가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외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이말 이외다.”

“부허(浮虛)는 패망(敗亡)의 근본이요, 착실(着實)은 성공(成功)의 기초외다.”

“진리(眞理)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正義)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모든 한국인이 자기의 인격(人格)을 개조(改造)하고 힘을 길러 인류(人類)의 신뢰(信頼)와 존경을 받는 위대(偉大)한 민족이 되자. 이것이 우리 민족의 높은 이상(理想)이요, 큰 사명(使命)이라고 도산은 생각했다.

인생은 너와 나와의 만남이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存在)다. 인간의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훌륭한 책(冊)과의 만남이다.

좋은 책은 우리에게 희망(希望)과 신념(信念)과 용기(勇氣)를 준다. 위대(偉大)한 책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感動)을 준다.

“인창호 평전(安昌浩評傳)”은 바로 그런 책이다.

젊은 청년(靑年)들이여! 이 책을 읽고 모두 큰 인물(人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甲申七月申旬

安秉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의 빛을 비춰주고 서거하신 후에도 우리민족을 위해 아직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신 분이시다.

도산의

“진리(眞理)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正義)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는 말 한 구절은 서거하신지 60여년이 지난 아직도 우리 젊은이,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커다란 빛으로 비춰지고 있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거짓이 영리한 사람의,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 버린 세상에 도산의 이러한 말씀, 진실 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영원히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됐을지도 모른다.

도산은 말한다.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을 맞이한 국민, 나라, 사람이라도 도산의 이러한 진실무망(眞實無妄)의 정신에 다시금 일어서 굳게 나아가는, 이루어내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도산은 높은 지위의 위치도, 일본 침략자를 응징하는 활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도 도산을 따르는 많은 국민, 젊은이가 도산의 무언을 배우고 무언을 기리고 있는가? 그것은 그의 인격이다. 인간은 많은 나약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높은 권세, 부를 가진 자도 결코 그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민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도산의 사상은 이를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힘이다. 진실은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아직

도 도산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그대로 우리 국민, 젊은이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도산의 말과 글과 삶을 통해 아직까지 도산의 모습을 모르는 많은 젊은이, 사람들에게 도산을 알리고 그 불빛을 더욱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또 하나의 도산이 나오고 그 하나의 도산에 의해 또 다른 도산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도산의 인격을 가장 짧은 글속에 가장 쉬운 말로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많은 이가 쓴 도산 전기를 검토해보고 연구하였다. 새로운 글도 생각해봤다. 그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글만을 엄선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이는 많은 이에게 도산의 모습을 알리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이었다. ‘한권의 명저가 우리의 생애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라는 안병욱 서영훈선생의 말은 결코 거짓된 형식에 치우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책을 읽고 난후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단 한명의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고 어려운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하나의 빛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이 책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내는데 격려하고 힘을 주신 안병욱 교수님과 홍사단우들, 자료 수집과 자문하여주신 최병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역은이 최문섭

추천의 글

이책을 읽는 분에게

1. 안창호 일화

- 약속을 꼭 지켜라 11 / 나는 밤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13
- 질서와 정돈 14 / 그 돈이 어떤 돈이길래 15
- 저는 죄인이올시다 17 / 손이 떨려서 시무(視務)할 수가 없소 20
- 단정한 태도로 22 /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25
- 나는 지금 7가지 병이 생겼다 하오 27 / 낙심마오 30
- 당신은 인물이오 33 / 깨끗이 된 손을 다시 더럽히지 말라 35
- 성내지 마시오 37 / 내가 거짓말할 사람같이 보입니까 40
- 몸과 마음을 깨끗이 41 / 그 정열을 조국에 바쳐라 44
-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47 / 서로 마음이 괴로웠네 49

2. 안창호 일기

- 1920년 1월 16일 일기 54 / 1920년 1월 17일 일기 54
- 1920년 1월 30일 일기 54 / 1920년 1월 31일 일기 55
- 1920년 6월 12일 일기 56 / 1920년 7월 8일 일기 56
- 1920년 7월 9일 일기 56 / 1921년 2월 4일 일기 58
- 1921년 2월 15일 일기 58 / 1921년 2월 17일 일기 58
- 1921년 2월 18일 일기 60

3. 안창호 편지

- 1908년 11월 20일 서울에서 써 보낸 편지 64
- 1920년 5월 18일 상해에서 써 보낸 편지 65
- 1920년 8월 3일 홍콩에서 써 보낸 편지 65
- 1932년 1월 16일 상해에서 써 보낸 편지 66
- 1932년 5월 27일 체포된 뒤 상해에서 써 보낸 편지 67
- 1933년 6월 1일 대진감옥에서 써 보낸 편지 69

4. 도산을 애도하는 글 75

5. 도산 안창호

투쟁생애편

- 소년시대-쾌재정의 응변 86
- 미주 유학시대-교포의 조직과 훈련 94
- 신민회시대-한말 풍운과 민족 운동 103
- 망명-실국 전후의 극적 사안 129
- 미주 활동시대-살아 있는 태극기와 애국가 149
- 상해시대-임시정부에서 대독립당까지 161
- 피수순국(被囚殉國)시대-민족정신의 수호자 198

국민훈련편

- 자아혁신 218 / 송태 산장 238
- 홍사단 259 / 동지애 312
- 이상춘 계획 331 / 상애(相愛)의 세계 345

안창호 연보

참고도서

안창호 일화



아름다운 꽃에서 그윽한 향기가 풍기듯이 위대한 인물에서 훌륭한 말씀이
솟는다. 도산이 결어간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깊은
감동의 일화가 허다하다. 말씀은 사람을 표현한다. 일화는 인격의 심볼이다.
언죽인(言卽人)이니, 말씀이 곧 사람이다. 일화를 통해서 도산의 뛰어난
인간상과 높은 정신을 더듬어보기로 한다.



약속을 꼭 지켜라



안병욱(安秉旭, 1920년~) - 철학자이며 교육자 수필가이다. (사상계)주간. 송
 실대. 명예교수. 경기대 교수 역임.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설립 대표. 인간교
 육을 위한 강연과 에세이, 철학사상, 전기등의 저서와 논문 발표. 저서로 <현대
 사상> <도산사상> <칼의 힘과 펜의 힘> <산다는 것> <안병욱 명상록>외 다수.

도산은 상해(上海) 계실 때에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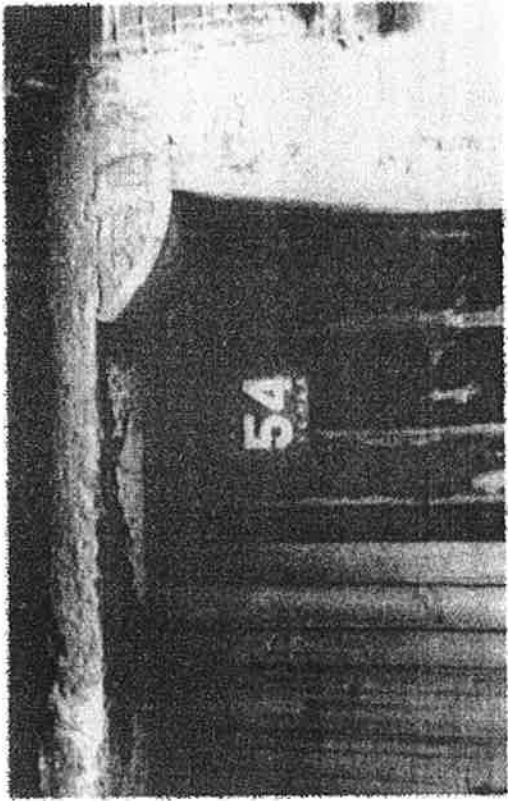
들을 무척 좋아하여, 소년단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소년단의 5월 행사에 돈이 필요하다고 도산에
 게 도와 달라고 했다. 도산은 그때 몸에 돈을 가진 것이 없었다. 그
 래서 4월 26일에 돈을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도산은 그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날 돈을 준비해
 가지고 그 소년의 집을 찾아갔다.

그날은 바로 독립투사 김구(金九)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윤봉길
 (尹奉吉) 의사가 상해 홍구 공원에서 일본 백천 대장에게 폭탄을 던
 지는 의거를 일으킨 날이다. 일본 경찰은 독립 운동을 하는 한국 애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 도산이 피체된 장소인 이유필의 집

국지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러 곳곳에 몰려 잠복을 하고 있었다. 도산은 그 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그 소년의 집에 갔다가 그 집에 잠복한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서 한국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고 대전에서 3년 반의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이다.

도산은 어린 소년과의 약속도 틀림없이 지키었다. 그는 신의(信義)가 한없이 두터운 분이였다. 약속을 꼭 지키어라, 이것은 도산의 생활신조요, 행동원칙이었다.

도산은 3년 반의 옥고를 치르고 대전 교도소에서 나왔다. 그때 일본 경찰은 도산에게 물었다.

“자유의 몸이 되면, 또 독립운동을 할 생각입니까?”

그때 도산은 일본 경찰에게 늑름한 모습,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했다. 내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독립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도산의 이 말씀에서 그의 놀라운 민족혼과 독립정신을 발견한다.

“... 봉우회 사건으로 피해되기 전 부인에게 보낸 편지. ‘나의 오고가는 것
과 일반 행동들 조사하는 것은 불만이거나 내내 찾아오는 사람들과
관련고 무례히 조사하고 강연하는 것을 끊어 버릴 것이다. 금하는
모양입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진술했다.”

였고 가정의 행복을 희생한지 오래였을 뿐더러

당신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는 바이

라. 임의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오랫동안 희생을 달게

여기어 온 바에 이제 어떤 고통을 받던지 어찌 원망할 것이 있으리오. 나는 더

욱이 여러 동지와 동포에게 빚진 것이 많고 지금은 늙었으니 다시는 집이나 무

엇이나 사사한 일을 돌아볼 여지가 없고 오직 혁명을 위하여 최후로 목숨까지

희생할 것을 재촉할 것뿐입니다. 고생 중에 있는 당신을 대하여는 고생을 더 받

으라 할 것 뿐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까지도 혁명의 정신을 넣어주기를 힘쓰소서. 아직은 시간

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몸은 좀 쇠약하나 특별한 병은 없으니 염려마소

서.

김 박사 아이들은 홍역을 합니다.

1932년 5월 27일 체포된 뒤 심해에서 써보낸 편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내가 일평생에 당신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 것이 없었고 이제 느낌에 와서

근심과 슬픔의 재료를 주게 되었으니 당신을 대하여 미안함이 끝이 없습니다. 당

신뿐 아니라 당신 이외에 나를 위하여 우려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더욱 미안함

니다. 그러나 과히 근심하지 마소서. 나와 같은 길에서 걸어가다가 나보다 먼저

철창 밑에서 고생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제 내가 이 맛고생을 받는다고 특별

히 슬퍼하고 한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나의 과거를 돌아보긴 데 무엇을 한다

는 것이 모두 위명뿐이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공연히 여러 사

나의 근본 성품이 속이지 않고 거짓말 아니하고 진실하니 이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 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됨에는 진실하고

깨끗한 것이 첫째임이라. 너는 스스로 부지런한 것과 어려운 것을 갈 건디는 것

을 연습하여라. 네가 책을 부지런히 보느냐. 쉬지 말고 보아라. 그러나 아무 책

이나 마구 보지 말고 특별히 좋은 책을 택하여 보아라.

좋은 사람 되는 법이 좋은 친구를 잘 가리어 두며 좋은 책은 잘 가리어 보는

두 가지가 매우 요긴하니라. 두 종류로 책을 택하여라.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사

적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관한 책은 좋은 책이오, 둘째는 네가 목적하고 배우고

지식을 돕는 데 관한 책이니라. 이 두 가지 성질을 표준 하여 책을 보고 한국 글

과 책을 잘 익히어라. 내가 주는 말을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줄 믿노라.

1932년 1월 16일 심해에서 써보낸 편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당신이 친수로 써 보낸 편지를 받아 읽으니 반가운 생각이 있는 동시에 슬픈

마음도 많습니다. 나는 남편의 직분 아버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아내와 자식

들을 고생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필선까지 공부를 못한

다니 더욱이 괴롭고 부끄럽소이다. 나는 당신을 무엇으로 위로 할는지 생각이

막연합니다. 내가 일찍 우리 민족에게 몸을 바치고 일하노라고 집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나 민족에게 크게 공헌한 것이 없으니 두루 생각할수록 죄송한 것뿐

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던 일을 버리고 집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당신도 잘

이해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일찍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지 오래

림에게 근심만 끼치게 되었으니 이것을 위하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책망함을 마지않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살인이나 강도범으로 이 경우에 처하지 아니한 것만을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심을 바라옵니다.

필립의 부탁을 받고워서 방문하는 미국영사도 만나 보았고 당신의 단식하지 말라고 권고한 정보도 받았습시다. 그 전보를 받고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비강히 느끼었습니다. 당신의 부탁이 없더라도 내가 그러한 이치 여기는 행동을 할 뜻이 없는 바이고 당신의 부탁을 또 존중히 할 터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앞으로 내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스스로 안심하기를 공부하여 이 시간으로 수양하는 시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장차 조선에 돌아가서는 어떠한 형편을 당할는지 모르거니와 이곳에 온 후에는 한번도 체형을 받은 일이 없을 뿐더러 무례한 말도 들은 일이 없고 도리어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습시다. 이곳에서 특별히 치과의사를 청하여 이를 고쳐 주었고 담배도 특별히 허락하여서 하루 3번씩 식후에 피웠습시다. 그밖에도 편의를 주었습니다. 이곳 간수들이 다 친절히 대접하며 동경합니다. 이즈음에 내가 날마다 지나는 과정은 대개 아침마다 세수하고 방을 소제한 후에 20분 동안 동맹운동을 하고 30분씩 세 번 정좌하고 그 나머지는 독서와 실내 산보 등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앞으로도 나의 지나는 형편을 정직하게 기록하여 보낼 터이니 신문상이나 바깥소문을 듣고 놀라지 마시오. 당신께 부탁할 말씀은 나를 위하하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필립과 영호와 의논하여 필선으로 하여금 완전한 전문지식을 가지도록 공부하게 하시오. 아이들을 너무 구속하지 말고 자유를 많이 주시오. 잘 못하면 자식들이 텃나기 싫습시다. 산업을 경영하고 모은 돈을 헤치거나 달러 소비하는 대로 쓰지 말고 기정한 방침대로 산업에 쓰게 하소서. 중국돈 60원을

정실에게 보내어 취하게 쓴 돈을 물게 하고 치과의사의 치료비를 정실이가 기별할 터인데 만일 집에 돈이 부족하면 송군한테(송종익) 말씀 하시오. 이만 그칩니다.

1933년 6월 1일 대전 김옥에서 보내낸 편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수산이가 이 선생께 편지한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하시오.)

당신이 경성 서대문형무소로 두 번 보내낸 편지를 다 반가이 받아 보았습시다. 이 형무소의 범규가 두 달에 한번씩 편지하는 법인데 다른 곳에 편지하는 때에는 당신한테는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왕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평생에 당신에게 기쁨과 위안을 줌이 없었고 이제 느즈막에 와서는 근심과 슬픔을 주게 되었으니 불안한 마음을 추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기사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시름을 내가 조용한 곳에 홀로 있어 평소애 그릇한 여러 가지 허물을 생각하고 한탄하는 중에 남편의 직분과 아비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또한 스스로 책망하는 조건입니다. 또는 당신이 왜 미국에 재류하는 여러 친구와 동포들이 나를 동정하여 걱정들 하심에 대하여 황송하옵니다.

그간에 집안에 별고 없으며 삼촌댁과 영호동생 부부와 아이들이 편안하고 친구들이 다 태평합니까. 여러 곳에 각각 편지하지 못하니 당신이 대신 문인하여 주소서. 차근과 에더훈인에 대하여 기뻐 축하하옵니다. 아주머님이 정목사편에 미화십불(조선 돈으로 40원) 보내신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오. 나는 경성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에는 지난겨울 특별히 추울 때에 얼마동안 추위에 곤란을 다소 받았으나 다른 괴로움을 받은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3월 28일

에 이 대전형무소로 이전하여 온 후로 더욱 평안한 지내오니 나를 위하여 근심 하지 마시오.

유숙하는 감방도 매우 정결하고 광선과 공기가 잘 통하며 음식도 비록 간단 하나 매우 정결하고 매우 삼시로 더운 햇밤을 주니 위생에 합당하고 구미에도 맞아서 잘 먹습니다. 또는 경성이나 이곳에서 다 아직 괴로운 별사건을 당함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개성이 본래 겁나하지 않고 담대한바 내가 이 경우에 처한 것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집안일을 돌아보며 아이들을 교양하는 데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시오. 당신이 만일 수심하는 빛을 따우고 있으면 집안에 화기가 없어지고 따라서 아이들의 신체발육과 정신발달에 큰 영향을 줄 터이니 내게 관한 모든 것은 아주 없어진 양으로 일소하여 버리고 가정에 유쾌한 공기와 아이들의 활발한 기상을 만들기로 주의 하시오. 당신이 30여 년 전 즉 청년시대에 샌프란시스코 파인스트리트 일인 보딩하우스에서 나의 장례를 예언한 것을 기억합니까. 또는 팔구년 전에 미주에서 작별할 때에 이번 작별은 무삼 작별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 하겠지요. 그런즉 당신은 그 리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할 것이 없이 태평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양함에 전심하소서. 내 친구중 나보다 먼저 세상을 작별하고 간 사람이 얼마입니까.

옥에서 목숨을 마친다 하여도 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장례는 자연에 맡기고 다만 평소에 지은 죄과를 참회하고 심신을 새로이 단련하여서 옥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디서든지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오직 화평한 마음으로 지내려고 스스로 준비하고 힘씁니다. 당신께 몇 가지 말씀할 것은

1. 아이들 혼인에 대하여는 필선은 아직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수산과 수리의 혼인이 염려입니다. 미주 우리 사회에 혼인의 문이 넓지 못한 바, 실제로 혼처를

구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감동하는 밑에서 저희들이 자유로 선택할 터인데 아이들에게 선택할 지식을 먼저 지도하여 주시오. 특별한 사람을 구할 것이 없고 직분을 존중히 하고 직업을 사랑하는 근실한 사람이면 만족한 줄 아시오. 그 중에 필립의 혼이가 너무 늦은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늦어진 바에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만일 죽지 않고 나가게 되면 내가 나가서 추천하는 것이 나올까 합니다. 나의 나갈 형기가 1936년 11월 6일인즉 앞으로 3년 5개월이 남았나이다. 3년 시간이 잠깐 같터이니 기다림이 좋을 까 합니다.

1. 집안생활에 대하여는 본래도 곤란한데 지금 특별히 불경기의 시기에 처하여 여간 곤란하리요. 그러나 이것도 평생을 받아오는바 견디는 힘이 다른 사람 들 보다 나올 것입니다. 다만 주의 할 것은 필영이를 제한 외에 네 아이는 무엇을 하던지 거리에 나가 신문지를 팔더라도 죄다 일전씩의 벌이라도 버는 일을 실행케 하고 이 불경기시기를 이용하여 절용을 공부하게 하소서.

1. 필립이가 장사를 못하고 남에게 고용하는 바에 할 수 있으면 그곳 포드차 동차 회사에 상당한 잠을 얻어서 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동양으로 건너와 살 경우에는 동양에 있는 그 회사의 일을 얻어 가지고 와서 살기에 용이할까 함이외다. 그 애의 삼촌 두성군은 매일 5원씩 받고 포드회사에서 일함으로 돈을 저축하면서 잘 지냅니다.

1. 윤진오군이 필립과 같이 무슨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본을 보내라 하였는데 그것을 시행할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돈과 동양 돈이 엄청난 게 가계가 되는 때에 있어서 동양에 있던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여간한 큰 손실이 아니니 그 돈은 아주 없어진 셈치고 기다려서 미국과 동양에 경제 융통의

형세가 원상대로 된 뒤에 이러나저러나 하여야 하겠고 또 그 돈에 대하여는 추후도 염려하지 마시오.

1. 필선의 수학을 원조하신 단소 여러분께 감사한 뜻을 대신 말씀하시고 저금 동맹을 다시 실행하기로 힘쓰기를 원한다고 하소서.

나중으로 당신께 다시 하옵는 말씀은 인생이란 것이 본래 강생불사하는 물건이 아니고 누구나 한번 낫다가 한번 죽는 바요, 내나 당신이 다 인생의 하나로써 세상에 와 있는 동안 잘 지내거나 못 지내거나 삶의 시간이 거진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것이 많지 못합니다. 이 위에도 말하엿거니와 나는 나의 지나간 역사의 그릇된 자취를 더듬어보고 양심에 책망을 받음으로 비상한 고통을 때때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갔으니 후회막급으로 생각하여도 별도리가 없습니다. 그런즉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끊어 보내어 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함이외다. 옛날 그릇된 자취를 다시 아니 밟겠다는 결심은 물론이지만 새로 밟아갈 것이 무엇일까 함이외다. 아무 별 것이 없고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 이것이 인생의 밝아나갈 최고 진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인류간 화평에서 나오고 화평은 사랑에서 나오는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경험하여 본 바 어떤 가정이나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은 행복의 가정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있는 사회는 화평의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을 최고 진리로 믿고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정이나 사회에 화평의 행복이 촉진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보다 먼저 사회를 행하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비상한 화평 중에 있음으로 남이 헤아리지 못할 무상한 행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즉 내나 당신이 앞에 남아 있는 시간에

우리 몸이 어떤 곳에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화평에 이르도록 '사랑'을 믿고 행합니다. 내가 이처럼 고요함을 공부할 생각만 하자는 동시에 이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줄 마음이 있어서 '사랑' 두 글자를 보내오니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옥중에서 보내는 선물을 받으소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선 집안 자녀들을 평일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화평의 기본으로 대하며 삼촌댁과 사촌집 친족들이며 그 밖에 친구들한테 평시의 감정을 끌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대하기를 시험하소서 효과가 곧 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비의 정신을 품고 대하기를 공부하여 보소서.

말이 너무 길어짐으로 그만 그칩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주 편지하고 저 하나 형편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은 평소보다 더욱 간절합니다. 그 중에 필영이 생각이 더 많습니다.